

제주보건소-혈액원 연결 통로 폐쇄 논란

혈액원, 지난달 27일 보건소와 잇는 통로 폐쇄 혈액원 “코로나 검사자 늘면서 안전 위한 조치” 보건소 공무원들 반발에다 내방객도 불편 호소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과 제주보건소 사이의 통로가 폐쇄되면서 양 기관 내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현장 확인 결과 보건소와 혈액원 두 기관 사이 통로가 폐쇄돼 있었다. 현장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다는 팻말이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은 밖으로 나가 돌아가야 했다. 혈액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 혈액원이 보건소 옆 장소로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이 통로는 지난 5월 27일 혈액원이 이 곳을 막으며 보건소와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 통로가 생기면서 길을 돌아가지 않고 양 기관 사이에 직통으로 연결돼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에 직원, 내방객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

나 확산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검사자가 늘어나자 혈액원은 통로 폐쇄를 결정했다.

혈액원 관계자에 따르면 “혈액원은 재난 관리법에 따라서 국가 핵심 기관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검사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검사자들이 혈액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보건소로 착각하고 들어오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다”며 “혈액원은 제주도내 유일한 혈액 수급이 가능한 곳이며 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혈액 수급 마비 등 심각한 상황이 이를 수 있어 통로를 폐쇄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 내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공무원은 “혈액원이 통로를 막을 때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많은 내방객들과 직원들은 시민복지타운광장 등 외부에 주차하고 보건소로 오고



지난달 27일 폐쇄된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과 제주보건소 사이 통로. 사진=강민성기자

있어 이 통로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혈액원 외부는 만성주차로 고질병을 앓고 있는데, 최근 확산세가 늘어나 많은 이들이 혈액원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혈액원 버스를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혈액원에 보건소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지만 입장 차가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통로 폐쇄로 보건소·혈액원 내방객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소 고혈압당뇨센터를 자주 찾는 고모(72)씨는 “돌아가는게 누군가에게 쉬운 순 있어도 고령자들은 다리가 불편해 걷기가 힘들다”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혈액원 관계자는 “통로를 폐쇄한 이후 도민들께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코로나 검사자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다시 통로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1일 금요일 음 5월 2일 (9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80%	제주	60%
80%	성산	60%
80%	고산	60%
80%	서귀포	60%

흐리고 비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2℃, 낮 최고기온은 25-27℃로 전망된다.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는 물이 불어나는 곳이 있겠다.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5:23	달뜨기 05:43
해지기 19:44	달지기 20:36
물때 만조 10:45	간조 05:44
23:47	17:18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보통

주간예보

내일	흐림	21/26℃
모레	흐리고 비	21/26℃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줄여야”

전교조·교총 등 잇달아 촉구

현재 제주지역은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새로운 등교수업 방안이 적용돼 전체 314개교(유치원 포함) 중 65개교에서 전교생의 2/3 등교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치원생과 초1~2학년·고3 학생은 매일 등교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는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임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이하’를 위한 입법청원도 진행 중이다. 오은지기자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

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주교총은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 경제 논리로는 과대,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면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률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

“천미천 정비 계획 중단을” 참여환경연대 성명 발표

찾은 정비공사로 인해 천미천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환경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중복예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절차를 중단하고 천미천의 전 유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천미천은 도내에서 하천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진 하천이며 하천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공사로 인해 큰 소들과 양안의 숲,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됐다”며 “침수피해 방지는 당연한 일이지만, 중복 정비공사로 인해 소중한 자연 자원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때 아닌 자목련꽃 10일 서귀포시 정방동 서북불초공원에 때 아닌 자목련꽃이 개화해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목련꽃은 보통 추위가 끝나는 3월말이나 4월 초순을 즈음해 개화한다. 강희만기자

거리두기 2단계 부분등교 ‘일주일 더’ 20일까지 계속... 현재 65개 학교 2/3 등교수업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연장되면서 이와 연동된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 조정한 도내 학

교 등교수업 및 밀집도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단, 교육부의 직업계 고등학교 등

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도내 직업계고(특성화고 6개교, 일반고 특성화고 3개교)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학생 등교수업이 가능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의 학사운영 방안을 2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코로나19로 생겨난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긴장을 놓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면서 “일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일상 회복의 희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마늘수확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라산 화산토양에서
청정 제주의 물과
바람이 키운 제주 마늘!**

제주농협

제주화산섬마늘은 제주농협 통합브랜드입니다

마늘제주협의회

조천농협 조합장 김진문
한경농협 조합장 김군진
구좌농협 조합장 윤민

함덕농협 조합장 현승중
고산농협 조합장 고영찬
대정농협 조합장 이창철

한림농협 조합장 차성준
김녕농협 조합장 오충규
안덕농협 조합장 유봉성